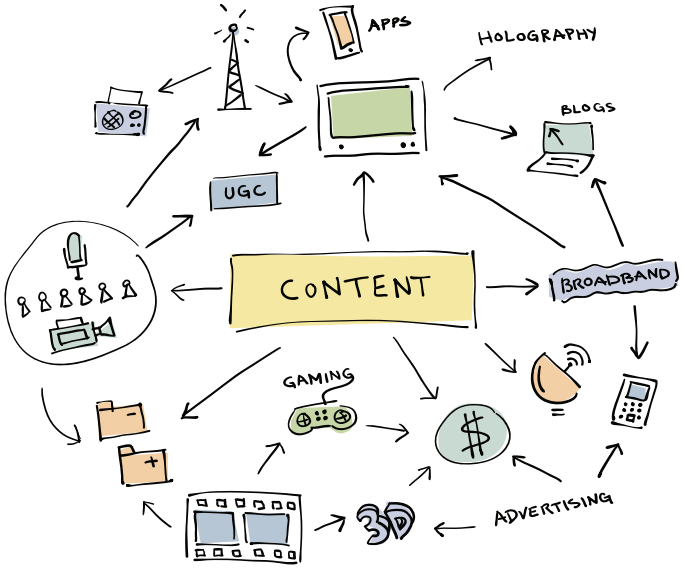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NABSHOW™ 2010

Where Content Comes to Life™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Show가 지난 2010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1500여개의 장비 업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신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여러 나라의 방송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참관하여 순조롭게 진행됐다.

올해 주제는 '콘텐츠가 생활로 다가가는 곳(Where Content Comes to Life)'으로 이를 실현할 장비, 솔루션, 콘텐츠 등 미디어 관련 기술이 총출동했다. 특히, 3D 영상과 증강현실 등을 생활 속에서 확산시킬 다양한 장비들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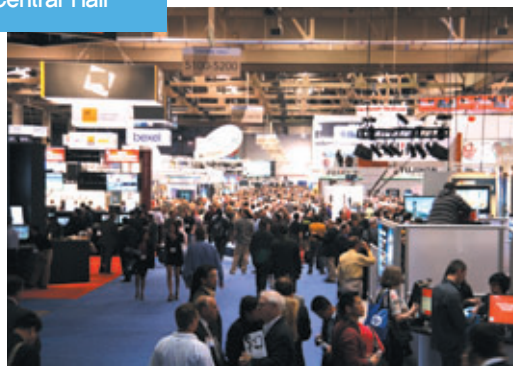
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위축된 NABShow가 올해는 전시장 등록대의 길게 늘어선 인파가 경기 회복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살려 향후 방송기술을 제시한 NABShow 2010을 살펴보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는 크게 3개의 Hall로 나뉘어 있다. Central Hall, South Hall, North Hall로 나뉘는데, South Hall은 다시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South Upper Hall, South Lower Hall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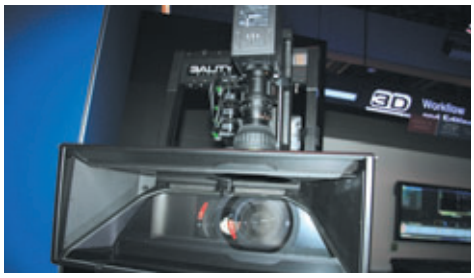
시선을 잡은 것은 Hall별로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전시장 부스였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정부의 방송장비 고도화사업 지원에 따라 28개사가 디지털 방송장비 및 솔루션, 3D 카메라 리그, 3D 디스플레이 등을 출품, 시연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술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얻었다. ETRI는 이 전시회에서 지상파DTV와 지상파DMB의 주파수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전송용량을 증대시키는 기술(ATSC-ADT 및 AT-DMB)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기존에 판매된 TV수상기 및 단말 호환은 물론 새로운 방송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 방송장비 시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Centr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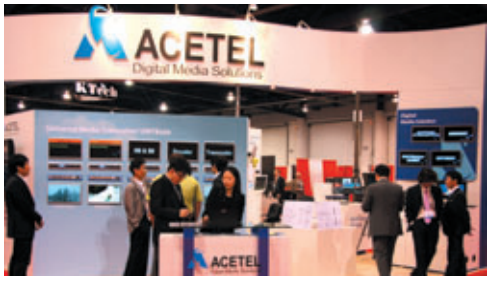
Central Hall에서는 주로 영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촬영, 전송, 조명과 관련된 장비가 전시됐으며, 작년 North Hall에 전시됐던 Radio, Pro audio도 위치를 바꿔 자리를 잡았다. 영상 관련 업체로는 SONY, Panasonic, Ikegami, JVC, Canon 등 일본 업체의 선점이 두드러졌다. Central Hall에 전시된 업체들의 장비를 보면 Tapeless와 3D Display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작 워크플로우의 효율화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메이저 업체들은 Tapeless Camcoder, ENG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동시에 3D display를 위한 입체 카메라 시스템까지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3D 붐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업체별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 기술의 3D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3D는 편광필터가 장착된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스포츠 경기, 수중 촬영 등 눈을 통해 신경으로 느껴지는 그 생생함은 불편함도 잊게 했다.

South Hall

South Hall에서는 후반작업, NLE, 비디오 서버 관련 장비들이 주로 전시됐으며, Avid, Grass Valley, Autodesk, Quantel, Adobe, Blackmagicdesign 등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주얼리서치(자막기), 다림비전(가상스튜디오), 티브이로직(HD 멀티포맷 LCD 모니터) 등 여러 업체들이 신제품 관련 홍보에 정성을 쏟았다.



특히, 티브이로직은 'OLED 3D 모니터'가 미국의 방송 관련 잡지사 3곳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티브이로직의 TDM-150W는 OLED 패널을 장착한 세계 최초의 3D 모니터로 1366×768 해상도의 15인치 AM-OLED 패널을 장착해 180도에 가까운 매우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North Hall에는 Harris, Evertz, Omneon, Miranda, Tektronix 등의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1,500여개) 업체들의 부스가 마련되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 NABShow 2010 'Where Content Comes to Life'

SONY

소니는 4K나 3D의 워크플로우에 전시장의 상당한 공간을 할애했다. 전시장에 업무의 효율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Media Backbone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 월드와 3D 대응 중계차를 꽉 차도록 배치시켰다. Cell 프로세서를 사용한 「ELLCAMI」가 출시됐으며, 제품은 트랜스 코드 전용의 「MPE-T1000」, 인제 파업과 트랜스 코드가 가능한 「MPE-L1000」이 있다.

3D 관련 제품으로는 3D 촬영에 적합한 박스 타입 신제품 카메라 「HDC-P1」과 3D 촬영을 위한 3D 박스(「MPE-200」)가 선보였다. 3D 박스는 Rig를 이용해 3D 영상을 촬영할 때 일일이 조정하기 번거로운 문제들, 가령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어긋난 축을 바로잡거나 키 스톤 조정, 색채를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제조사들의 Rig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소니 HDC 시리즈 카메라 및 캐논, Fujinon 렌즈 등과 함께 사용하면 메타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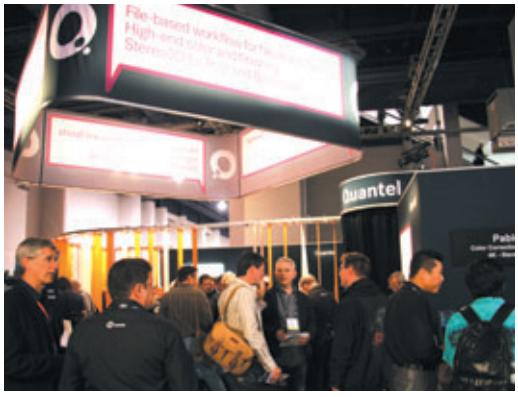
Panasonic

Panasonic은 'Panasonic ideas for life'라는 주제로 3D, AVCCAM, P2HD 등의 워크플로우를 소개했다. 이 중에서도 좌우 두 대의 카메라를 원 패키지로 결합한 'AG-3DA1'이 집중조명을 받았다. 두 대의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어도 각 카메라의 특성을 갖춰야 하고, 렌즈도 줌이나 포커스 등 동기가 잡혀야 한다. 독립된 카메라를 맞추면 크기가 커지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형으로 제작됐다.

grass valley

큰 부스에 초록색으로 전시장을 밝힌 그라스밸리는 3D 카메라를 선보여 관람객으로부터 주목받았다. 그리고, HD-DPM+의 920만 화소 CCD와 14비트 A/D 샘플링, 1080p 50/60을 지원하는 「LDK 8000 Elite」 멀티포맷 HD 카메라와 「LDK 8300」 HD 슈퍼 슬로우 카메라, 각종 스튜디오 카메라도 함께 전시됐다. 서버 관련해서는 T2와 K2 SUMMIT, K2 SOLO 등을 선보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Quantel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 콴텔은 방송용 3D 스테레오 워크플로우를 선보였다. 안경을 착용하고 후반작업에서 색보정까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선보였다. 그 외에 파이널컷프로를 활용한 뉴스, 스포츠용 워크플로우가 방송사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Evertz의 화두도 3D다. 눈여겨 본 것이 3D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으로 송출되는 동안 한 화면에서 12분할하여 모니터 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부조에서 화면을 하나하나 검색하지 않아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편안함이 특징이다. 그 외에 IPTV나 SO 송출시 채널 간 균일하지 못한 오디오 게인을 평균화하여 맞춰주는 IntelliGain과 립싱크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맞춰주는 IntelliTrack도 전시됐다.

Tektronix는 기존의 HD용 계측장비를 비롯해 3D 관련 제품도 선보였다. 3D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찾아내어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3D 제작을 위해서 모든 장비들이 3D화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방송사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 길 것으로 예상된다.